

대학생의 과제해결과정 중 정보적합성 판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evance Judgement of College Students in Problem Solving Process

배경재 (Kyung-Jae Bae)**

초 록

본 연구는 정보활용능력의 여러 영역 중에서 대학생이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평가해나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요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정보활용교육에 반영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과제해결과정에서 적합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참여자의 의견과 부합되는 내용 정보 판단의 어려움, 신문기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과제의 특성상 적합성 판단 시간 확보의 어려움, 적합한 정보원 판단과 과제평가결과 연관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서 분석되었다. 따라서 권장사항으로서 객관적인 적합성 판단기준의 교육, 신뢰성 있는 정보원 안내, 교수자의 참고 정보원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Big 6 4.1단계 교육의 강조 등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relevance judgement of college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subjects to identify relevance judgement processes and problems. As a result, the main problems during relevance judgement processes were judgement about content of document aligned with subject's opinion, judgement about reliability of newspaper articles, shortage of relevance judgement time due to deadline of an assignment and judgement of relationship of documents and evaluation result. The recommendations fo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re as follows: objective relevance judgement education, guidance of reliable information source, showing guideline of using reference information by professor and emphasis of engaging in information (4.1 stage of Big 6).

키워드: 대학생의 과제해결과정, 적합성 판단, 정보문제, 정보문해
college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 relevance judgement,
information problem, information literacy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며, 2013년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jbae@dongduk.ac.kr)

■ 논문접수일자: 2014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14년 2월 27일 ■ 게재확정일자: 2014년 3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31(1), 189-206, 2014.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1.18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에게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업과정중의 과제해결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정보문해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각 대학 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을 포함한 도서관 이용법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하는 방식과 같이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키기 위해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 개발 및 역량 강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될 정도로 대학생에게 정보활용능력은 매우 핵심적인 학업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원(2011)은 실제로 대학에서의 정보활용능력 관련 교과 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이 대학에서의 과제 수행 및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와 전제 아래 정식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함양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대학의 관련 교육 현실은 미흡한 수준이다. 장덕현, 최고운(2008)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국내에서는 아직 대학도서관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보활용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시설 및 서비스 이용안 내나 서지교육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활용능력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에 대

한 심층적인 이해 및 분석이 미흡하여 대학생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표준화된 교과목을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배경재(2012)는 특정 집단마다 고유의 환경에서 겪는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진단 없이 동일한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대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요 정보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맞춤 교육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특히 정보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도 웹 정보를 사용하거나, 객관적인 평가 없이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로서 활용하는 등 웹 정보를 맹신하는 경우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활용능력의 여러 영역 중에서 대학생이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평가해나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요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정보활용교육에 반영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의거하여 아래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대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요 정보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맞춤 교육이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보활용능력의 여러 영역 중에서 정보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는데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 1) 대학생이 대학교육 과정 중에 접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에 적합한 정보원을 판단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2) 과제 수행 시 주요한 정보 적합성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 3)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의 정보 적합성 판단 특성을 토대로 정보활용교육에 반영할 권장사항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2.1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대학에서의 정보활용능력 관련 연구는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이 학업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 아래 정보활용교육 모델 개발, 정보활용능력 평가, 정보활용능력 영향 요인 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보활용교육 모형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국내외 모형을 참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김성은, 이명희(2006)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보활용능력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분석하여 실제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의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장덕현, 최고운(2008)은 전통적인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대학도서관의 관점에서 도서관 이용교

육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대학 도서관 주체의 정보활용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김지은(2011)은 대학 정보활용능력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활용능력 표준들을 바탕으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정보활용능력 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핵심요소와 Kuhlthau의 Information Search Process(ISP) Model을 접목시켰다.

또한 정보활용능력의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평가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보활용능력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평가영역 및 평가문항을 설계함과 동시에 대학생들의 현재 정보활용능력의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정보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평가모형이 제시된 바 있으며(이정연, 정동열, 2005), 실증적인 정보활용능력평가 연구를 위해 특정 연구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실행한 연구도 실시되었다(김태훈, 한복희, 2010).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해외의 연구 중에서는 특히 Fitzgerald와 Neely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Fitzgerald(1999)는 다양한 정보활용능력의 구성요소중에서도 정보평가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어떤 요소들이 개인의 정보평가 과정 및 평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보평가 과정은 다양한 복합적 요인(개인적 특성, 사회심리적 요소, 인식론적 요소, 정서 요소, 사전지식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Neely(200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중에서도 사회적이며 심리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어떤 요인이 한 개인의 정보활용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Neely는 정보의 관련성(Relevance) 평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Neely Test of Relevance, Evaluation and Information Attitudes(Neely Test)'라는 측정도구를 만든 바 있다.

한편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과 관련하여 특히 과제해결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윤정옥(2004)은 대학생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한정된 맥락에서 보이는 개별적인 감정과 행태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전공 4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추구 과정에서 시간의 제한,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비용의 문제, 서비스나 정보원에 대한 지식의 결여, 검색 능력의 제한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관찰하였다. 배경재(2012)는 대학생의 팀 과제해결 상황에서의 정보문제 해결과정을 분석하고자 연구참여자와의 두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팀 과제 수행 시 과제정의, 적합정보 판단, 결과와 과정의 평가, 팀원 간의 책임의 부재, 통합정리 요소가 대학생들이 겪는 주요한 어려움임을 밝혔다. 이지수(2013)는 대학원생들이 그룹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게시된 온라인 토론 게시물을 분석하여 그룹원들의 협동적 정보행태를 밝히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그룹원들의 협동적 정보행태가 Kuhlthau가 제시한 ISP Model의 6단계와 비슷한 단계로 진행됨을 파악하였다.

2.2 정보적합성 판단

사용자 관점에서 정보적합성은 “다차원의 인

지적 개념으로서 사용자의 정보 인식과 정보 이용자의 정보 요구 상황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Borlund, 2003). 즉 정보적합성 판단 행위는 각각의 고유한 상황에 매우 의존적이며, 고차원적인 지적 행위로서 그 특성을 쉽게 단정 짓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Saracevic(1996)은 정보적합성 연구의 유형을 정보적합성의 정의 및 속성(Nature) 연구, 정보적합성의 표현(manifestation) 연구, 정보적합성의 행태(Behavior) 연구, 정보적합성의 영향(effects) 연구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적보적합성 판단 과정에 대한 분석은 행태 연구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상황 속에서 관찰이 가능한 적합성 판단 행동에서의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특히 사용자의 정보탐색, 추구, 검색, 활용에 관련된 행동 특성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Saracevic은 정보적합성의 표현과 관련하여 시스템적합성(System or algorithmic relevance), 주제적합성(Topical or subject relevance), 인지적합성(Cognitive relevance or pertinence), 상황적합성(Situational relevance or utility), 동기적합성(Motivational or affective relevance)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적합성의 유사관계가 무엇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지에 따라서 유형화한 것이며, 이용자가 위치한 현재의 상황 및 업무, 의도 및 목적 또한 검색된 문서와의 유사관계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 것이다.

정보적합성의 판단은 이용자가 처한 상황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자의 적합성판단 기준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졌다. 적합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연구 초기에

〈표 1〉 박정아(2010)의 기존 연구 적합성 판단 기준 정의

구성 요인	개념 정의
주제성	문서의 주요 내용이 검색어와 관련된 것
신선성	내용이 새롭거나 최신인 것
이해가능성	내용이 이해하기 쉽거나 보기 편한 것
신뢰성	내용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것
구체성	내용이 다양하고 상세한 것
특수성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적절하고 초점을 잘 맞춘 것
흥미성	내용이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것

는 Barry와 Schamber(1998)가 Saracevic의 견해와 달리 이용자나 상황의 특성에 상관없는 적합성 판단기준의 유한한 집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깊이/범위/특수성, 정확성/유효성, 명확성, 현실성, 현실성, 출처의 품질, 접근성, 정보/정보원의 이용가능성, 입증가능성, 정서와 같은 10가지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에 적합성 판단 기준은 웹 검색과 같은 디지털 이용환경에 초점을 두거나 어린이 이용자와 같은 다양한 개별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Hirsh(1999)는 10명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연구한 결과, 권위, 편리성/접근성, 흥미, 언어, 새로움, 동료 관심도, 최근성, 품질, 주제와 같은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Huang과 Soergel(2013)은 그간의 적합성 판단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적합성 판단에 대한 개념적 토대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 결과 적합성이란 개념이 정보개체, 정보 요구, 결정개체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보개체와 관련된 요소는 정보개체의 주제, 형태, 이용, 속성으로 구성되며, 정보요구

와 관련된 요소는 정보요구 표현 유형, 정보요구의 표현 내용, 결정개체의 구성요소는 결정개체의 본성, 개체의 역할, 개체의 능력 및 특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박정아(2010)가 기존의 다양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들에서 도출한 주요 적합성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표 1〉과 같이 주제성, 신선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구체성, 특수성, 흥미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적합성 판단 연구모형을 설계하는데 활용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평가해나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상황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기법을 활용하였다. 2012년 2학기에 정보검색형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9명을 대상

으로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별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면담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Part 1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정보 적합성을 판단하고 평가해나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 항목은 과제상황 하에서 정보원의 소재 파악, 검색된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보활용과정에서의 주요 사건 및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의문사항이다. 연구참여자의 정보 적합성 판단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 과정을 정보문제해결모형인 Big6¹⁾의 3단계인 소재파악과 접근(3.1 정보원의 소재파악, 3.2 정보원에서 정보찾기), 4단계인 정보활용(4.1 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 4.2 적합한 정보 가려내기)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사건 빈도를 파악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Big6 모형은 배경재(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보문제해결 과정 분석을 위해 사용된 틀로서 연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활용되었다. 이 Part 1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이 대학교육 과정 중에 접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에 적합한 정보원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Part 2 면담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활용된 정보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합성 판단 기준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각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적합성 판단기준을 박정아(2010)의 연구에서 정의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어떤 유형의 판단 기준이 어떤 특성으로 활용되었는지 분석하였으며, 정보적합성 판단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형 면담을 실시하였다. 박정아(2010)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활용한 것은 해당 연구가 기존의 다양한 적합성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공통된 판단기준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2차 면담의 결과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연구참여자의 정보 적합성 판단기준 분석과 과정상의 어려움을 규명하는데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면담 및 분석의 방법은 배경재(2012)의 연구에서 활용된 더빈의 '인지과정(sense-making) 접근법'을 기본 틀로서 활용하였으며, 이 접근법은 이미 고영만, 오삼균(2000)의 연구에서 정보 이용자의 심층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된 바 있다. 인지과정 접근법은 정보이용자의 사고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성적 연구방법으로서 면담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면담 과정은 특정 상황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각각의 모멘트를 시간적으로 연결해 가는 'micro-moment time-line' 기법을 활용한다. 이 기법은 응답자에게 어떤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결정적인 사건(event)들을 처음에 일어난 것, 두 번째로 일어난 것 등의 순서로 중요한 사건들을 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서 응답자에게 정신적으로 다시 각 사건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그 사건이 일

1) Big6는 워싱턴 대학의 아이젠버그(M. Eisenberg) 교수와 웨인센트럴 고등학교 도서관의 사서 버코위츠(R. Berkowitz)가 개발한 정보문제 해결모형으로서 과제 정의, 정보탐색전략, 소재파악과 접근, 정보활용, 통합정리, 평가의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영만, 2010).

〈표 2〉 연구과정의 단계

구분	단계명	단계 설명
1	Part 1 면담 - Event 분석	과제 수행시 Big 6의 3, 4단계(정보탐색 실행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재생한다. 이 사건들을 Event로 지칭하고, 각 Event마다 개별 종이에서술한다.
2	Part 1 면담 - 의문사항분석	Event 기록종이들을 일렬로 정렬해놓고 첫 번째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가졌던 중요한 의문사항들을 열거하도록 한다. 각 의문사항에 대해 해결여부를 표시한다.
3	Part 2 면담 - 정보목록 확인	과제 작성에 활용한 정보의 목록을 확인한다.
4	Part 2 면담 - 정보적합성 판단 기준 조사	각 정보가 과제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각 정보별로 상세히 질의한다.
5	Part 2 면담 - 정보적합성 판단의 어려움 조사	연구참여자가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비구조화된 형태로 질의한다.
6	면담결과 분석	Event 및 의문사항의 빈도와 함께, 정보 적합성 판단기준을 범주화하여 분석한다.

어났을 때 가졌던 물음, 알고 싶었던 것들, 혼돈 되어 있었던 점 즉 의문사항(question)에 관해 열거하도록 한다(고영만, 오삼균, 2000).

은 153분이었다.

3.2 연구 절차

〈표 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Part 1 면담 이후 10여분의 휴식을 가진 이후 Part 2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연구참여자 과제 개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연구참여자 9명의 과제 개요 및 각 연구참여자별 면담 소요시간은 〈표 3〉과 같다. 연구참여자별 평균 면담시간

4.2 연구참여자 실험 사례

총 9명의 연구참여자 사례에 대한 정보적합성 판단 관련 이벤트 분석(Big 6의 3, 4단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진행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3 ‘운동발달 주요 토픽 5가지 선정하기’의 분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례 3은 총 38개의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이벤트는 전체 정보활용과정 중에서 Big6의 3단계인 소재파악과 접근, 4단계인 정보활용에 해당하는 과정만을 구성한 것이다.

이벤트의 구성이 완료된 이후 〈표 5〉와 같이 각 사건 과정에서 떠올랐던 의문사항을 분석하였다. 사건과정별 의문사항을 구분하고 각 의문사항의 해결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례 3의 경우 타 학생의 사례와 비교하여 도서관 정보원

〈표 3〉 연구참여자 과제 및 면담시간

구분	과목명	과제명	면담소요시간(분)
#1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문제에 대해 선택하여 설명하고,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시	140
#2	조형실기	물리적인 폭행에 의한 정당방위에 관한 법 조사	150
#3	운동발달	운동발달 주요 토픽 5가지 선정하기	170
#4	복지정책	행정부지관런 정책을 기반으로 자유 주제	200
#5	청년기갈등의 이해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대한 주제	110
#6	재무관리	주택건설 관련 회사들의 재무 위험이 매우 높는데 대한 원인과 대책	150
#7	중국문학의 이해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노신'의 문학작품을 읽고 에세이 쓰기	180
#8	생명공학 실험	생명공학 실험에 관한 사전조사 및 실험 수행	150
#9	현대문학특강	백석의 생애 특징과 문학	130
평균 면담 시간			153

〈표 4〉 #3 사례 이벤트 구성

이벤트	상세내용
1	운동발달과 관련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다이어리에 적으며 고민한다.
2	자료는 체육학에 대한 자료와 교육학적인 자료로 나누어 찾기로 했다.
3	학교 도서관에서 찾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4	학교 도서관에 가서 '운동발달'을 검색했다.
5	검색 결과를 보고 찾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책이 많은 번호 대를 파악했다. (십진분류표의 몇 번 대에 관련 자료가 많은지)
6	바로 움직이지 않고, 파악한 번호의 여러 개의 서가를 위치만 적어놓았다.
7	적어놓은 모든 서가의 위치를 보고 동선을 파악한 후, 가까운 위치의 서가부터 찾아갔다.
8	그 위치에 직접 찾아가서 서가에 있는 모든 책의 목차를 브라우징 했다.
9	과제와 연관된 책을 한번에 10권 이상 빼서 자리에 가져다 두고 온다.
10	관련된 도서가 다양한 서가에 섞여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3회 정도 반복하였다. (체육학과 관련된 자료와 교육학적인 자료가 서로 다른 곳에 분포되어 있음)
11	가져오는 책은 제목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새 책을 찾는다. 그러나 최신성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에는 내용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나온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선택하지만 2002/2004/2006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다면 모두 최신의 것은 아니기에 내용을 먼저 보고 선택한다.
12	자리에 가지고 온 모든 책을 목차와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며 도서관에서만 보고 오늘 내에 끝낼 도서와 오래 걸릴 책, 즉 대출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도서를 분류했다. 오늘 내에 끝낼 책은 주로 한 파트만 필요한 경우가 많다.
13	도서관에서 보고 끝낼 도서들의 목차를 쭉 살펴보았다.
14	목차를 보고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을 노트북에 정리했다.
15	오래 걸릴 책 중에서 무겁고 두꺼운 것은 대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기로 결정했다.
16	목차를 보고 복사할 범위를 선정하였다.
17	선정한 범위의 내용을 복사하였다.
18	대출한 책은 꾸준히 가지고 다니며 보고 정리했다. 노트북에 필요한 정보를 다 적으면 바로 반납하였다.

이벤트	상세내용
19	노트북에 적은 것을 강의 자료와 대비시키며 정리했다.
20	정리한 내용을 보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시가 필요했다. 논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1	논문을 직접 가서 찾아도 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RISS, 국회도서관 등 모든 논문사이트에 접속했다.
22	'운동발달'을 검색해서 나온 논문을 우선 살펴보았다.
23	결과 내 재검색으로 '지각운동'을 검색했다.
24	검색 결과로 나온 논문들의 목차와 초록, 그리고 결론을 살펴보았다.
25	원하는 결과 값이 나와 있는 논문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였다.
26	원하는 값이 있는 논문의 참고목록을 살펴보았다.
27	논문의 참고논문도 찾아 훑어보았다.
28	논문의 참고논문 중 원하는 내용이 있는 논문을 다운로드하였다.
29	해당 과목 교수님의 성향을 저자검색으로 찾았다.
30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하였다.
31	교수님의 논문은 성향만 파악할 뿐, 과제와 연관되어 있어도 일부러 쓰지 않는다. 교수님의 논문을 과제에 사용하면 왠지 교수님께 잘 보이려고 부러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32	논문을 다운로드해 정리하다 보니 필요한 내용의 책이 새롭게 생겼다.
33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을 검색하였다.
34	검색 결과 많은 책이 있었으나 가서 보니 대출 중이거나 자리에 없었다.
35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36	사야 할 도서의 제목과 저자를 적고, 사기 전에 서점에 문의하여 재고가 몇 권 남았는지 먼저 파악한다.
37	재고가 확인되면 광화문에 가서 도서를 구입 한다. 도서 구입은 언제나 광화문의 대형서점에서 한다. 가장 많은 도서가 있기 때문이다.
38	구입한 도서의 목차를 훑어보고 원하는 부분의 내용을 이제까지 정리했던 것에 추가한다. 정리했던 내용을 토대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5> #3 사례 이벤트별 의문사항 분석

이벤트	의문사항	해결 여부
1	내가 만드는 자료가 전문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까?	X
	친구들이 자료를 문의한다면 어떤 자료를 찾으라고 알려줘야 할까?	○
2	교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어필해야 할까?	X
3	학교도서관에도 마땅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X
4	다른 키워드는 없나?	○
	정확한 키워드인데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X
6	이 서가 말고 다른 데는 없을까?	X
7	과연 내가 효율적으로 잘 찾고 있나?	○
8	목차에는 없는데 책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X
9	내 짐이 사라지지 않을까? 책을 놓고 오는 사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X
10	가장 적합한 조합을 한 책은 무엇일까?	X
	이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책은 어떻게 알까?	X
11	출판년도가 빠른 책과 필요한 내용이 있는 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 자리로 가져올까?	○

이벤트	의문사항	해결 여부
12	어떤 책을 대출할까?	○
	어떤 책을 복사할까?	○
	어떤 책을 여기서 바로 정리할까?	○
16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사해야 하나?	○
	복사를 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하는 것이 나을까?	○
18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책을 봐서 혹시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았나?	X
19	교수님의 의도대로 잘 하고 있나?	X
	교수님의 성향은 어떠한가?	X
20	논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21	전문적인 논문 사이트이지만, 이 사이트의 논문들을 신뢰할 수 있나?	○
22	다른 학교 논문 중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논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X
	논문사이트 간에 통일성이 없어서 불편한데 다운로드 방법이 왜 다를까?	X
23	내가 잘 찾고 있나?	X
25	이 논문이 내가 찾는 주제에 부합하는가?	○
	너무 자료가 많아서 과제의 적절한 분량을 위해서는 함부로 아무 자료나 쓸 수 없는데, 이 자료가 과제에 예시로 넣을만한 가치가 있나?	X
	예시로 넣을 자료는 그래프와 표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더 잘 띄까?	○
	어떤 자료를 선택해야 교수님이 보기 편하실까?	○
	자료나 이론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논문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배치해놓은 것일까?	X
28	내가 대학 이름만으로 이 사람의 논문을 판단해도 될까?	○
	논문의 참고논문이면 더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까?	○
	이것까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까?	○
30	교수님의 논문만으로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까?	X
33	대출중이 아닌데 없는 자료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검색해보면 여러 권이 나오는데 왜 없을까)	X
34	진짜 사야하나?	○
35	내가 사려는 책이 서점에 남아있을까?	○
36	내가 사는 책이 가장 깨끗한 책인가?	○
	되도록 빨리 가야 할 텐데 서점에 언제 갈까?	○
37	이게 최선일까? 내가 지금까지 한 자료수집이 괜찮게 되었나?	○
	더 이상 다른 자료를 찾지 않아도 될까?	○

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보인다.

사례 3의 미해결된 의문사항에 대해 패턴을

살펴보면, 교수의 의도, 자료의 신뢰성, 논문의 주제 부합성, 잘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서적인 불안감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적정보원(교수, 사서, 선배, 동료 등)을 활용하여 해결될 만한 의문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4.3 Part 1 면담 조사 결과

위와 같이 총 9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 분석을 진행한 후, Part 1 면담 결과의 각 이벤트, 의문사항이 Big 6 과정상 3,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각 단계별로 합산하고, 최종적으로 <표 6>과 같이 빈도 수치를 도출하였다. 이벤트, 의문사항의 빈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질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정보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정보활용 과정의 특징에 대

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벤트 평균의 경우 3.2 단계(정보원에서 정보찾기)가 6.0으로 가장 높으며, 4.2(적합한 정보 가려내기) > 4.1(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 > 3.1(정보원의 소재 파악)의 순서로 빈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탐색 실행의 전, 후 단계(정보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색 이후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정보검색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각 이벤트를 살펴보면 온라인 정보탐색 행동 패턴이 '검색 엔진에서의 키워드 검색'과 '검색 결과들 중 해당 자료를 찾는 것'으

<표 6> 9명 사례에 대한 Big6 매핑

구 분	Big6 단계						
	3.1 정보원의 소재파악	3.2 정보원에서 정보찾기	4.1 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	4.2 적합한 정보 가려내기	기타	합계	
이벤트	#1	0	8	4	2	0	14
	#2	3	5	7	6	7	28
	#3	5	8	6	10	9	38
	#4	1	7	0	4	0	12
	#5	1	5	3	2	0	11
	#6	2	9	3	5	0	19
	#7	0	5	7	4	11	27
	#8	1	4	1	2	8	16
	#9	4	3	2	4	0	13
이벤트 평균	1.9	6.0	3.7	4.3	3.9	19.8	
의문사항	#1	0	14	3	10	13	40
	#2	2	2	8	7	13	32
	#3	7	8	2	19	6	42
	#4	1	13	0	4	0	18
	#5	3	6	2	0	0	11
	#6	7	11	3	8	15	44
	#7	2	7	3	7	44	63
	#8	5	0	2	5	11	23
	#9	21	16	7	28	0	72
의문사항 평균	5.3	8.6	3.3	9.8	11.3	38.3	

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은 경우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주로 키워드 검색 결과로 나온 여러 자료들 중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이동하여 바로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패턴이 발견되지만, 학술 사이트의 경우 검색 결과 중 자신이 원하는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오프라인 정보 활용의 경우 정보요구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난 이후에 한번에 그 자료를 읽고 보고 듣는 행위를 보였으며, 온라인 자료의 경우 검색 즉시 읽고 정리하거나 혹은 읽으면서 요약하고 분석의 과정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온라인 자료 검색 관련 인터뷰 중에 '대충 훑어보았다.', '딱 봐도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것 같더라.' 등의 대답이 반복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검색된 자료에 대하여 4.1의 '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 단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행하지 않아 빈도수가 낮게 파악된 이유로 추정된다.

의문사항 평균의 경우 4.2 단계(적합한 정보 가려내기)가 9.8로 가장 높으며, 3.2(정보원에서 정보찾기) > 3.1(정보원의 소재 파악) > 4.1(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의 순서로 빈도가 나타났다. 3.2 단계(정보원에서 정보찾기)에서 비교적 많은 빈도의 의문사항이 나타난 것은 피 실험자가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어디에서 어떠한 정보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정보원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탐색하는 동안에도 이 정보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4.4 Part 2 면담 조사 결과

Part 2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과제수행과정에서 활용한 정보적합성 판단 기준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고 정보적합성 판단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4.4.1 정보적합성 판단 기준의 분포 및 특성

연구참여자들이 과제작성을 위해 활용한 정보원들을 확인하고 각 정보원을 과제에 활용하게 된 이유, 즉 정보적합성 판단 기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 조사된 정보적합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진술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박정아(2010)의 연구에서 정의된 적합성판단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다양성'과 '감정'의 기준은 기존 유형에 적합하지 않아 신규 기준으로 생성하였다. '다양성' 기준은 '문서의 형식 및 내용 측면에서 다른 문서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정도', '감정' 기준은 '문서의 심미성, 디자인 등 감성적인 측면과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7〉과 같이 조사 결과 연구참여자가 1명이 과제 작성을 위해 평균 9.9건의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정보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평균 18.3회의 인지적인 사고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합성 판단기준 중에서도 주제성(4.6회)과 신뢰성(4.1회)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적합성 판단기준이다.

정보적합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진술 중 특징적인 면을 파악해볼 때, 우선 학생들은 사례 2와 사례 3에서처럼 다양성을 상당히 중요한 기

〈표 7〉 정보적합성 판단 기준의 분포

구 분	적합성 판단 기준											활용 정보수	
	특수성	구체성	신선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	주제성	흥미성	접근성	다양성	감정	합계		
연구 참여자	#1	0	0	1	5	7	6	1	3	0	0	23	7
	#2	1	0	0	1	5	2	1	2	2	0	14	9
	#3	1	3	1	7	2	12	1	2	0	3	32	13
	#4	0	1	2	0	3	4	0	3	2	0	15	7
	#5	2	1	0	1	2	6	0	0	0	2	14	7
	#6	2	3	1	1	5	1	0	1	0	0	14	8
	#7	0	6	0	1	4	5	0	0	0	0	16	10
	#8	3	0	1	2	3	2	0	1	1	0	11	6
	#9	2	5	3	1	6	3	1	0	2	3	26	22
합계	11	19	9	17	37	41	4	12	7	8	165	89	
평균	1.2	2.1	1.0	1.9	4.1	4.6	0.4	1.3	0.8	0.9	18.3	9.9	

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사례 2]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관련 있는 만화도 찾아봤어요...” (다양성)

[사례 3] (인용을 위한 인용)
 “이건 과제 중에 체육학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때 연관 지어서 쓸 개론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매우 옛날 책이에요. 출판년도 보면, 내용이 주로 한자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사실 원래 같으면 제가 안 빌리는 스타일이예요. 전 한자 있으면 안 빌리거든요. 그런데 참고도서목록에 제가 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거예요. 실제로 이 책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책 이름이 필요 했던 거죠. 그 내용의 출처가 있고 그게 책이니까, 책을 참고했다는 걸 어필하

기 위해서...” (다양성)

또한 아래 연구참여자 진술과 같이 정서, 흥미성, 디자인과 같은 정보의 내용적인 측면 이외의 형태적인 사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사례 5] “이건 책 상태가 깨끗해서 빌렸어요. 99년도 책인데 상태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종이 질이나 표지나 디자인에 민감해요...” (감정)

[사례 2] “그리고 책이 새 책 같았어요. 표지나 재질이 좋으면 일단 나는 최신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감정)

[사례 8] “이 책은 가독성이 좋아요. 또 정말 디자인이 매우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참고 목록 중에서 디자인이 제일 괜찮았을 거예요. 그것도 이 책을 선택하는데 한 몫 했지요.

제목과 디자인이 확 사람을 이끄니까...” (감정)

[사례 3] “자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제 의견과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감정)

신뢰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매우 개인적인 기준을 잘못 활용하여 적절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자주 드러났다. 아래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내용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정보를 통해 느껴지는 분위기를 통해 피상적으로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사례 9] “이 블로그에 올라온 다른 글들을 대충 훑어보니 이용자(블로그 글의 게시자)가 금융경제나 건설 산업 등에 관련된 글을 자주 게시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믿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았어요... 논문자료는 아니었지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썼어요...” (신뢰성)

4.4.2 정보적합성 판단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연구참여자가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할 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의견과 부합되는 주제의 정보(주제성을 갖춘 정보)를 잘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제를 완성해나가는데 있어서 학생의 개인적인 논지를 정해놓고 해당 논지에 부합되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학술 정보의 경우 초록을 사용하거

나 2차, 3차 정보원과 같은 다양한 정보원로의 접근 경로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어려운 점을 제기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과제작성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하는 정보원 중의 하나가 신문기사이다. 특히 과제의 최신성을 위해 기사를 인용할 때, 최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사를 찾으면서도 내용은 적합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이름이 생소하면 출처에 대한 의심이 들며 정말 신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인터넷 신문 정보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결국 인용하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셋째,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검색 및 활용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제 기한 때문에 정보적합성 판단을 충분히 할 여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검색되는 정보의 양은 많지만 검색된 정보의 맥락을 살펴보면 정작 과제해결에 적합한 정보는 너무 적다는 게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넷째, 과제라는 특성상 교수님의 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인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보원을 검색해서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다.

[사례 3] “저는 이번 과제를 할 때 저만의 확고한 주관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수님과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내가 옳은 방향으

로 선택한 것인가? 서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나?’ 라는 질문을 통해 되돌아보지만 이것이 늘 어려운 점인데, 그래서 참고문헌을 쓰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이 먼저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과제를 예로 들면 저는 수많은 책을 찾아보며 과제를 수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수업교재만 베낀 애들이 더 점수를 잘 받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문헌이 대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활용과정의 여러 단계 중에서 정보적합성 판단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과제해결과정 중 정보적합성 판단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 과제 수행 시 정보적합성 판단 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활용하여 도출된 대학생의 정보 적합성 판단 특성을 토대로 정보활용교육에 반영할 권장사항을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적합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거나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개인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하여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름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거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보활용과정에서 적합성 판단행위가 가지는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적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 도서관의 관점에서는 적합성 판단 단계에서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신뢰성이 확보된 정보원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정보원의 안내를 통해 적합성 판단단계에서 일차적인 학생들의 고민, 신뢰할만한 정보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셋째, 교수자의 일관되며 효과적인 참고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으로서 과제 평가결과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평가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전공분야별로, 교수자별로, 과제의 특성별로 다양한 참고정보 활용 기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교수자가 과제를 부여하는 시점에서 참고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의 주제성 판단을 위한 문서의 맥락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Big 6과정 중 4.1단계(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의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쇄정보원보다는 특히 웹 정보원을 활용할 때 학생들은 찾아낸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위와 같은 대학생 정보활용교육의 권장사항이 대학도서관 또는 대학의 정보활용교육에서 강조되어 다루어진다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적합성 판단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심층면담기법을 활용한 연구로서 전체 대학생 집단의 교육상황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점을 토대로 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적합성 판단 과정이외에도 정보활용과정의 다양한 요소들

(과제정의, 정보탐색전략, 정보탐색 실행, 정보활용, 분석 및 종합, 평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각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집단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정보활용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만 (2010). 정보문해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고영만, 오삼균 (2000). 문제극복모형의 적합성과 정보화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7-26.
- 김성원 (2011).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 상관관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31-46.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031>
- 김성은, 이명희 (2006).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교수학습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77-200.
- 김지은 (2011). Kuhlthau의 ISP모델에 기반한 대학의 정보활용능력 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101-122.
- 김태훈, 한복희 (2010).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C신학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53-266.
- 박정아 (2010). 정보 검색에서의 사용자 중심 적합성 판단 모형 개발 및 평가.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정 인지과학과정.
- 배경재 (2012). 대학생의 과제 중심 정보문제 해결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215-234.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215>
- 윤정옥 (2004). 맥락에 따르는 정보추구: 대학생의 과제 관련 정보탐색의 내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99-218.
- 이정연, 정동열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4), 39-59.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4.039>
- 이지수 (2013). 그룹 연구 과제에서의 협동적 정보행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97-117.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097>

- 장덕현, 최고운 (2008).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37-60.
- Barry, C. L., & Schamber, L. (1998). Users' criteria for relevance evaluation: A cross-situational compariso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4, 219-236.
- Borlund, P. (2003). The concept of relevance in I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 913-925.
- Fitzgerald, M. A. (1999). Evaluating information: An information literacy challenge. *School Library Media Research*, 2(July).
- Hirsh, S. G. (1999). Children's relevance criteria and information seeking on electronic resourc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 1265-1283.
- Huang, X., & Soergel, D. (2013). Relevance: An improved framework for explicating the notion. *J. Am. Soc. Inf. Sci.*, 64, 18-35.
- Neely, T. Y. (2000). *Aspects of Information Literacy: A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ennsylvania, USA.
- Saracevic, T. (1996). Relevance reconsidered '96. In P. Ingwersen & N.O. Pots (Ed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LIS2)* (pp. 201-218). Copenhagen: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 Kyungjae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Information Problem Solving Process in Team Project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215-234.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215>
- Chang, Durkhyun, & Choi, Gou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for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37-60.
- Kim, Jieun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Model for Undergraduates Based on Kuhlthau's Information Search Process(ISP)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101-122.
- Kim, Sungeun, & Lee, Myeonghee (2006). A Study on the Learning-Instruc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177-200.

- Kim, Sungwon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on the Information Literacy and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31-46.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031>
- Kim, Taehoon, & Han, Bokhee (201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Information Literacy.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3-266.
- Ko, Young Man (2010). *Information Literacy*.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Ko, Young Man, & Oh, Sam Kyun (2000).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blem-solving models and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7(4), 7-26.
- Lee, Jisu (2013). Exploring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in the Group-Based Research Project: Content Analysis of Online Discussion For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97-117.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097>
- Lee, Jungyeoun, & Jung, Dongyoul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4), 39-59.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4.039>
- Park, Jung ah (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user-oriented relevance judgment model in information retriev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Yoon, Cheongok (2004). Information Seeking in Context: Content Analysis of Information Search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2), 199-218.